

	보도자료	충남도당
2017년 4월 28일(금)	대변인 : 김 연(010-3355-4074) 담 당 : 우승윤 정책실장	
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-2, 승지빌딩 5층 / 041-569-1500, 010-3406-5528		

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, 천안서 첫 현장회의 개최

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가 천안을 찾았다.

더민주 중앙선대위는 4월28일(금)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이번 대선기간 들어 첫 현장 선대위원회의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·이석현·이미경·염홍철·이다혜 공동선대위원장, 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, 박범계 종합상황본부 2실장 등 중앙선대위 주요인사와 충남선대위 박완주 상임선대위원장, 양승조·강훈식·여기구·박수현·윤일규·이정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.

추 상임선대위원장은 “중앙선대위 첫 현장회의를 충청의 고장 충남에서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안희정 지사를 아끼는 충남도민들께서 서운함이나 걱정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안 지사와 문재인 후보는 마음도 하나, 정책도 하나다. 안심하고 문 후보를 도와주시길 당부한다”고 전했다.

추미애 대표는 특히 “충남도민께 ‘문짜문안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 ‘문재인을 찍으면 문재인도 되고, 안희정도 된다’는 뜻”이라며 “문재인 후보가 충남에 약속한 장항선 복선전철, 천안아산 KTX 역세권 R&D 집적지구 조성,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 주요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박완주 충남상임선대위원장은 “지난 11일 동안 도내 15개 시·군을 모두 돌아본 결과,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. 이번 대선은 충남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,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단은 회의 후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이순신장군 탄신 제4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.